

현장과 시각

총선 입지자들 채점 받아라



홍행기
정치부 차장

“실용정부에서는 실용인사가 필요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참여정부 고위 인사 중 한 명의 얘기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기자의 우문(愚問)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다면 실용인사의 기준이 뭔가”를 묻자 “지역과 국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 남들이 못해내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란 즉답을 내놓는다.

“자신을 실용인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조금 어려운 듯한 질문을 하자 “경력과 실적이 증명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돌아온다.

제18대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전남 지역 20개 선거구에는 이미 자천타천의 후보 150여 명이 몰려 표밭갈이에 한창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서나 ‘어느 당이 어떻고, 어느 후보가 어떻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가히 정치의 계절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과거의 총선과는 전혀 달라진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앞에서 ‘역전의 용사’들이 ‘무명의 신진’들에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지난 17대 총선과는 달리, ‘실용과 합리’라는 단어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던질 예정인 광주·전남지역 후보군에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도, 그리고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물갈이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수십년의 공직생활 동안 각종 민원 현장에서 몸과 머리로 부딪치고 해결하면서 체득한 지혜, 그리고 수백~수천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며 몸과 익힌 리더십 등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격증이자 실적 증명서’이기도 하다. 거창한 민주화 경력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지역구 활동도 없는 이들에게 ‘실용과 합리’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선거 풍토야말로 유일하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던 당원 하 해아 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서 마치 대단한 ‘치적’인양 자랑하고 내세우는 코미디는 더 이상 있어서도, 용서되어서도 안된다”며 “국회의원도 ‘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선거구민에게 ‘채점’을 받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는 한국 민주화의 메카이자 뒷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평가에 걸맞은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는 한국호(號)의 나침반을 ‘실용’쪽으로 맞춰놓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명예를 좇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용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는 광주·전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redplane@kwangju.co.kr

“3, 4월중 한미 정상회담”

이명박 당선인측 조율중... 특사단 망미때 최종 결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측은 오는 2월 25일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을 3월 또는 4월 중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방미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핵 문제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시작전권, 한·미동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 당선인이 가급적 3월 중 방미해 주길 희망하고 있으나, 이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과 4월 총선 등 국내 일정 때문에 최종 결론을 미룬 채 속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미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을 3월 또는 4월 중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방미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당선인 측은 2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방문할 경우와 4월9일 제18대 총선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이 당선인이 취임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방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 측은 3월 방미를 추진할 경

우 4월 총선에 대한 부담 외에도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다른 국정 현안을 뒤로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 당선인의 방미에 대비, 국무부를 중심으로 백악관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관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위원장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서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거듭 전달했다.

/연합뉴스



자유신당 현판식 14일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열린 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왼쪽 두번째)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선태 창당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이 전 총재, 강삼재 창당준비위원장, 이홍주 부위원장.

/연합뉴스

‘친노신당’ 창당 불발되나

盧대통령 우려 표명... 친노의원들도 주춤

손학규 대표 선출에 반발,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친노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나 정치적 압축들이 부상하면서 불발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다 후속 탈당 및 신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됐던 친노의원들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전 총리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주의와 진보의 흐름을 이어온 정당이고 손 대표가 정상적인 당내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황에서 특정한 당 대표 선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신당의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추가 탈당을 고려중인 유시민, 이회영, 김영주 의원 등의 행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할 이야기 다했다”

박근혜 “당에서 할 일만 남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4일 ‘4·9 총선’ 공천과 관련해 “내가 할 이야기는 다했다.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신문사 주최로 열린 ‘미래를 이끌 여걸 여성지도자상’ 수상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측근의원들과 회동에서 “공천이 조금이라도 잘못 간다면 절대 화시키지 않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힐러리-오바마 ‘흑인비하 발언’ 공방

인종문제 틀추어내며 네거티브 난타전

민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미시간주 프라이머리(15일·이하 현지시각)와 네바다 코카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19일)를 앞두고 급기야 인종문제를 틀추어내며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하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아이오와 코카스(3일)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8일)에서 격전을 치른 각당 후보들은 13일 미시간,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등 전략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장 이를 앞으로 다가온 미시간 예비선거의 경우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30%)가 존 매케인 상원의원(22%)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56%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미시간주는 경선 일정을 앞당겨 당규를 어거면서 프라이머리가 취소

돼 의미가 없게 됐다. 반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네바다와 플로리다, 나아가 2월5일 ‘슈퍼 화요일’에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라고 CNN과 폭스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경우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운명의 슈퍼화요일’의 향배를 결정할 전초전으로 간주, 유권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흑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난타전을 벌였다.

힐러리 의원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으로 불렸을 정도로 흑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사실을 부각시켰고, 오바마는 이 최초의 ‘흑인대통령’ 출현에 대한 기대감 심기에 주력했다. 특히 힐러리, 오바마는 흑인 비하성 발언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네거티브 공세도 불사했다.

/연합뉴스

힐러리·오바마, 공화 누구와 붙어도 승리

여론조사 결과 모두 앞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유력 주자들과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가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맞대결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48%인 매케인을 눌렀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의 대결에서

도 56%대 40%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전했다.

오바마는 또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의 대결에서도 59%대 37%로 앞섰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게도 58%대 39%로 우위를 보였다.

힐러리는 매케인과의 대결에서 50%대 48%로 앞섰고, 롬니 전 주지사와게는 58%대 40%로 우세했다. 또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55%대 42%, 허커비 전 주지사에 대해서는 56%대 42%로 앞섰다.

/연합뉴스

전남도선관위, 불법선거 근절 총력

총선 관련 올 첫 대책회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와 흑색선거를 비롯한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14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22개 시·군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침을 전달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조직적인 돈 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선관위도 오는 16일, 5개 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기본서 이룬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15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 무료 교육보통가임근로자 수감료 환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무도청 앞 전일빌딩 4F) / ☎ 971-0002 (빅마트 옆인원 빌딩 4층)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개강 매월 초 (주,야) 기본서 이룬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교육보통가임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강의중(매일 무료청강 환영)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절하는 학원 1위 ●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 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북구점 ☎ 529-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 개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 대원빌딩 옆 창빌딩 6층

농성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 **서경빌딩 임대**

최적의 업무공간 사들따당의 고품격 리모델링 완료 농성 지향형역 5분 거리

서경빌딩 특징

- 신세계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금호전자랜드, 광천터미널, 교원공제조합 바로 옆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최첨단의 업무공간, 지하철 1호선 역세권
- 지 역 : 일반상업지역
- 주차대수 : 약 100대 (옥내 40대, 옥외 60대)

층별 안내

- 1층 : 농협중앙회
- 2층 : 임 대
- 3층 : 임 대
- 4층 : 임 대
- 5층 : 임 대
- 6층 : 임 대
- 7층 : 임 대
- 8층 : 임 대
- 지하 : 유흥주점

임대 문의 **368-8889 (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93-8번지